

# 순전한 그리스도인, C.S. 루이스

C.S. Lewis | Clive Staples Lewis

홍종락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C. 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를 수식하는 표현들이다. 혹시 이 정도가 C. S. 루이스에 대해 아는 전부라 해도 염려할 것 없다. 이 글을 통해 그의 생애와 대표적인 저작들을 일부나마 훑어보게 될 테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루이스라는 산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는 짙막한 산행 가이드라 할 수 있다. 또는 루이스라는 메인 요리 전에 입맛을 돋우려고 준비한 전채요리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

## 어린 시절

C. S. 루이스는 1898년 11월 29일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수학을 전공한 지적인 여성이었다. 어린 시절 루이스는 책을 좋아하는 부모가 갖춰놓은 방대한 서재에서 읽기와 쓰기에 전념했다. 그런데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를 여의고 그는 곧바로 기숙학교로 보내지는데, 그곳은 모든 면에서 최악이었다. 이후 여러 학교를 전전하며 몇몇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대체로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무렵 어릴 때의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된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루이스의 논리적인 능력을 최대한 키워 준 개인교사의 도움을 받아 옥스퍼드대학 고전학부에 입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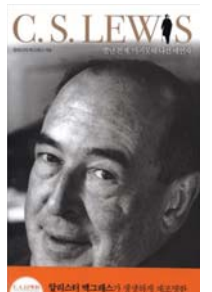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루이스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투 중 부상을 당하여 잉글랜드로 후송된다. 이때 체스터턴의 책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는 강력한 변증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다 기독교인임을 알게 된다. 그 후 학업을 재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고전학, 철학, 영문학 학위를 취득한다.

## 예기치 못한 기쁨



강유나 역, 홍성사 (원제: Surprised by Joy: the Shape of My Life)

## C.S. LEWIS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홍종락 역, 복있는 사람, (원제: C. S. Lewis-A Life: Eccentric Genius, Reluctant Prophet)

1924년, 루이스는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일 년 동안 철학을 가르친 후, 다음 해 5월에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의 펠로우로 선출된다. 이후 29년간 이곳에서 영어와 영문학을 가르치다가 1954년 케임브리지 모들린 칼리지로 옮겨게 된다.

회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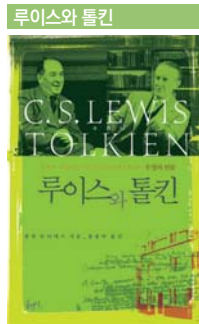
대학에서 자리를 잡은 후 그의 신앙적 탐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치열한 고민과 사색, 독서와 토론을 통해 그의 철학적 입장은 무신론에서 범신론으로, 다시 유신론으로 바뀌게 된다. 그의 영적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쁨』 14장의 제목은 ‘체크메이트’이다. 자신이 사상으로서의 유신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체스게임에 비유한 것이다. 14장의 중심내용은 “얼마 가지 않아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환상조차 더 이상 붙들 수 없게 되었다. 나의 맞수는 드디어 마지막 맞수를 두기 시작하였다.”는 언급과 함께 펼쳐진다. 그리고 그의 맞수가 두는 마지막 맞수가 소개된다. 맞수의 결정적인 몇 수에 체크메이트로 걸린 루이스는 결국 두 손을 들고 만다.

**모들린의 방에 혼자 있을 때, 아주 잠시 일에서 눈을 떴지만 해도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꾸준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보기 바란다. 내가 너 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1929년 여름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는 아예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 그 반대였다. 그분이 사냥꾼이었고(내게는 그렇게 보였다) 나는 사슴이었다. 그분은 인디언처럼 몰래 나를 추적해 정확히 겨냥하고 쏘셨다.”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J. R. R. 톨킨(그렇다. 《반지의 제왕》의 작가 톨킨이 그의 가까운 친구였다)을 꼽을 수 있다. 루이스는 톨킨과 대화를 나누고 후, 기독교가 “참된 신화”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신을 믿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리, 즉 기독교를 믿는 자리로 넘어갔다.” 루이스는 기독교의 복음을 ‘사실이 된 신화’라고 불렀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이 지점에서만, 오직 이 지점에서만 신화는 사실이 된 것이 틀림없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도, 하나의 철학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요지이자 실재이다.**

루이스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그에게 엑세서리처럼 덧붙여진 종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해 주고 통합시켜 준 총체적 세계관이었다. 루이스보다 조금 앞서 성공회 신자로 회심한 T. S. 엘리엇은 회심 전후의 작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루이스는 달랐다. 루이스는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상상력과 이성적 논리 사이에서 분열을 경험했다. 그가 사랑하는 시와 신화는 모두 상상의 영역에 속한 것. 말하자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가 실재라고 믿는 것은 모두 음산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고 나서 그 안에서 상상과 논리의 통합을 경험했다.



클린 듀리에즈 저, 홍종락 역, 홍성사



조지 세이어 저, 홍종락 역, 홍성사

『순례자의 귀향』과 『고통의 문제』

1933년, 루이스는 회심 후 처음으로 『순례자의 귀향』The Pilgrim's Regress』을 출간한다. 존 버니언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을 본으로 삼은 이 책에는 상상력과 이성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안에서 상상력과 이성을 통합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책의 주인공 존은 루이스와 똑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그는 그것을 ‘기쁨’이라 불렀다)을 따라가다가 그 갈망이 가리키는 실체를 찾게 된다. 1940년에는 『고통의 문제』를 출간했다. 그는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이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는 ‘선하다’, ‘전능하다’, ‘행복하다’의 뜻을 분석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피조물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밝힌다. 이 책의 한 대목에서 그는 고통을 이렇게 정의한다. “고통은 귀머는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출간을 계기로 그는 1941년 <BBC> 라디오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강연을 맡게 된다.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그 무렵 루이스의 강연은 인기가 대단했고,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세 시리즈(“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인의 행동”)로 총 29회에 걸쳐 진행된 라디오방송 원고가 각각 책으로 출간되었고, 나중에(1952년) 그것을 하나로 묶어 펴낸 것이 『순전한 기독교』이다.

『순전한 기독교』 1부는 도덕법을 논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은 모두에게 있다. 인간 본성의 법칙,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다면 그런 법칙을 제정할 존재, 입법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칙을 어기고 있으니, 그 법칙의 제정자와 우리의 관계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이종태 역, 홍성사 (원제: (The) Problem of Pain)



홍종락 역, 홍성사 (The Pilgrim's Regress : An Allegorical Apology for Christianity, Reason, and Romantic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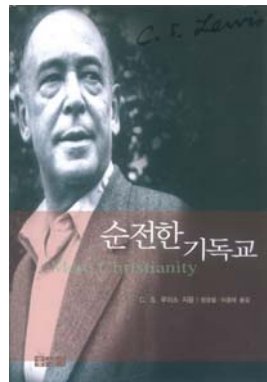
『순전한 기독교』에서 루이스는 도덕률의 존재인 인간이 암담한 상황에 처한 것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고자 가망 없이 시도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 역사 전체가 그런 실패의 역사라고 정리한다. 인간이라는 기계는 하나님을 연료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기에, 다른 연료로 열심히 굴러보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셨다. 첫째, 인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양심을 주셨다. 둘째, 세계의 온갖 이방종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다. 루이스는 이런 기묘한 이야기를 '좋은 꿈'이라고 부른다. 셋째, 한 민족(유대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옳은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자처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옛날부터 항상 존재해왔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계속 보낸 장본인이며,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한다. 게다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한다. 루이스는 이 모든 증거를 이렇게 정리한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즉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짐을 뺄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यो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시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이종태 역, 홍성사 (원제: Mere Christianity)

#### 공군 강연과 소크라테스 클럽

『순전한 기독교』가 광범위한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뿐 아니라, 루이스가 겪은 좌절과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940년, 루이스는 영국 공군을 방문해 기독교 강연을 시작한다. 1941년까지 이어진 이 강연을 통해 루이스는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시간은 그가 지성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접근 방식이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루이스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가진 구제불능의 지성주의 때문에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예수님께 오십시오.”라고 단 순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전도 방식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는데, 본인처럼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행된 시도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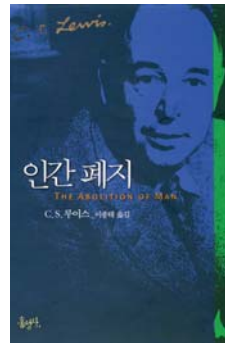
1942년 1월부터 소크라테스 클럽이 시작되었다. 그는 1954년 케임브리지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이 클럽의 좌장을 맡았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지적 난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옥스퍼드 대학 당국의 판단으로 만들어졌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된 이 모임의 취지는 ‘어디건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라’는 소크라테스의 원리를 기독교에 대한 찬반양론이라는 주제에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는 경건함이라는 치장 없이 기독교를 지지하는 논증과 무신론적 주장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엉뚱한 혁명적 선동 없이 기독교에 반대하는 논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임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유신론이나 무신론의 한 진영에서 먼저 발표를 한다. 그러면 반대 진영의 사람이 그의 논증에 반론을 제기하고 원래 발표자가 재반론을 하는 방식이었다. 루이스는 대부분의 논쟁에서 무신론의 대변자들을 코너에 몰아넣었다.

#### 기독교적 속고



양혜원 역, 홍성사 (원제: Christian Reflections)

#### 인간폐지



이종태 역, 홍성사 (원제: The Abolition of Man)

####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기적』, 《나니아 연대기》

1942년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출간했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장 악마 워우드에게 그가 맡은 인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도록 유혹하는 내용이다. 악마의 시가(그래서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은 ‘원수’로, 사탄은 ‘지하에 계신 아버지’로 등장한다)에서 인간이 겪는 사소한 일상들, 생각과 판단들이 영원한 운명이 달린 영적 전투의 장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이 작품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마침 1947년 〈타임〉지가 루이스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미국에서의 인기도 확고해졌다.

같은 해, 『기적』이 출간되었다. 원래 기독교가 옳음을 논증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기적과 예언의 성취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연이 존재하는 전부는 자연주의(Naturalism) 입장을 받아들이면 기적이 ‘원천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루이스는 기적의 문제는 증거로 결정되기 이전에 자연주의나 초자연주의 중 어떤 입장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철학적 문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자연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시도했다.

자연주의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사건은 이전의 물리적 원인의 결과이다. 따라서 정신적 상태(mental state: 극단적 유물론자는 이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도 두뇌의 물리적 프로세스로 결정된다. 하지만 그렇게 생겨난 어떤 물리적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합리적 추론이 모든 과학과 지식의 기초인데, 자연주의는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니, 아예 그것을 부정한다. 논리적 연관관계, 전제와 귀결의 관계(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시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는 물리적 프로세스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주의에 따르면 자연주의 자체도 의미 없는 소리가 되므로 자기반박적이다.

1950년 《나니아 연대기》의 첫째 이야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 출간되었다. 1939년 9월, 독일군의 공습을 피해 런던에서 그의 집 킬른스로 와서 지내던 네 아이들을 보면서 떠올렸던 착상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이후 1956년 『마지막 전투』에 이르기까지 매년 1권꼴로 총 7권의 《나니아 연대기》가 출간되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가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동물이 사는 나라에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상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이자 나니아의 창조자인 아슬란은 '길들일 수 없는 사자'로서 두렵고도 착한 존재라는 신적 이중성을 탁월하게 그려냈다. 《나니아 연대기》는 어린이도 즐겁게 볼 수 있지만 어른들도 그 속에서 루이스 사상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는 걸작이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김선형 역, 홍성사 (원제: The Screwtape Letters)

기적



이종태 역, 홍성사 (원제: Miracles)

예기치 못한 조이, 그리고

1950년 1월, 루이스는 34세의 미국인 작가 헬렌 조이 데이빗먼 그레섬의 편지를 받았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의 일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발전해 마침내 1956년 옥스퍼드 호적 등기소에서 혼인신고를 한다. 그런데 조이 데이빗먼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녀가 입원한 병원에서 두 사람은 영국 성공회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올린다. 9월에는 조이 데이빗먼의 건강이 호전되었고 12월 10일에는 다시 걷게 되었다. 행복한 시절이 꿈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1959년 10월, 조이의 암이 X-레이에 다시 나타났다. 다음 해 7월 13일, 그리스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조이는 4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듬해, 루이스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겪은 아픔의 기록 『헤아려 본 슬픔』을 가명으로 출간했다.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안소니 홉킨스와 테브리 윙거 주연의 《새도우랜드》(Shadowlands, 1995)로 영화화되었다. 혹시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아내 조이는 루이스의 문학적 뮤즈이기도 했다. 그녀의 도움으로 루이스가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가 탄생했다. 또 『네 가지 사랑』은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경험적 통찰이 부족했을 것이고, 그녀와 사별한 아픔을 담아낸 『헤아려 본 슬픔』은 사별의 고통을 겪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고통의 문제』가 고통을 논리적으로 다룬 차가운 책이라면 『헤아려 본 슬픔』은 실존적 고통을 다룬 뜨겁고 아픈 책이다. 1963년 6월 15일 루이스는 심장 발작을 일으킨 후 요양소에 들어갔다. 11월 22일 금요일 65번째 생일을 보내고 일주일 후인 11월 28일 그는 집에서 사망했다. 다음 해, 생전에 작업한 『개인기도』가 출간되었다. 그의 묘비에는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헤아려 본 슬픔



강유나 역, 홍성사 (원제: Grief Observed)

영광의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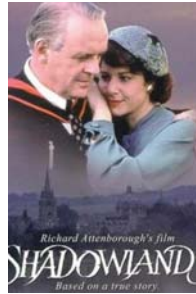
홍종락 역, 홍성사 (원제: The Weight of Glory)

세상의 마지막 밤



홍종락 역, 홍성사 (원제: The World's Last Night and other Essays)

영화 《새도우랜드》



(Shadowlands, 1995)

변증가의 기도

루이스는 각종 변증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했고 그 와중에 나온 많은 저작으로 국제적 명성도 얻었다. 회심 이후 그가 거둔 성공은 성공을 추구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었다. 할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따라온 보너스였다. 그러나 대가도 따랐다. 그의 변증활동은 옥스퍼드에서 많은 책을 만들었다. 그것은 그가 29년 동안 옥스퍼드에서 몸담고도 교수가 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였다. 결국 1954년이 되어서야 케임브리지에서 교수 초빙을 받고 자리를 옮기게 된다. 옥스퍼드의 동료들 중에는 그의 변증, 전도 활동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가 많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학문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을 포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적 매춘'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기독교가 거저된 것, 또는 사적 편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루이스의 절친 오언 바벌드는 세 사람의 루이스가 있다고 했다. 첫째는 소설가, 문학가 루이스이다. 이러한 루이스의 작품으로 아동문학에 해당하는 《나니아 연대기》, 우주 3부작이라 불

리는 공상과학소설(『침묵의 행성 밖으로』, 『페렐란드라』, 『그 가공할 힘』), 프슈케 신화를 재해석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가 있다. 둘째, 문학비평가, 문학사가 루이스이다. 학자였던 루이스의 면모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밀턴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실낙원 서문』, 역작으로 평가받는 『16세기 영문학』, 중세와 르네상스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그려낸 『폐기된 이미지』, 독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문학비평에서의 실험』 등을 펴냈다.



셋째는 기독교 변증가 루이스다. 이것은 본문에서 많이 소개했다. 그런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전공영역의 연구를 통해 쌓은 지식과 통찰이 소설과 변증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분야의 연구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누적된 연구 성과를 그대로 기독교를 번역하고 소개하는데 사용한 것이다. 만약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의 변증활동은 진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귀하게 사용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변증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학자로서 자신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충실했던 루이스였지만 그것이 늘 기본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변증이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변증활동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는 모든 이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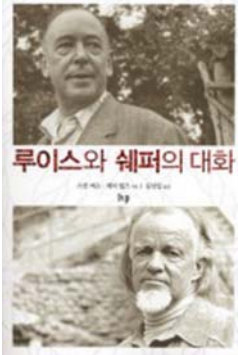
## 변증가의 저녁 기도

C. S. 루이스

저의 온갖 초라한 패배와  
오, 무엇보다 제가 거뒀다고 생각하는 온갖 승리와  
당신을 대신한답시고 키워낸 영리한 논리,  
청중은 웃기고 천사들은 울린 그 논리와  
당신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저의 온갖 증명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표적을 주시지 않는 주여,

생각은 동전에 불과한 것.  
제가 당신 대신 당신의 얼굴이 새겨진  
그 닳고 닳은 이미지를 신뢰하지 않게 하소서.  
오 아름다운 침묵이시여,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오셔서 당신에 대한 생각을 비롯한  
제 모든 생각에서 저를 자유케 하소서.  
좁은 문과 비늘귀의 주인이시여,  
제 안에서 모든 천박한 이론들을 제하시어  
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

### 루이스와 웨퍼의 대화



스콧 보슨, 제리윌즈 저, 김선일 역, IVP

### 홍종락

홍종락은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한국해비타트)에서 간사로 일했다. 아내와 더불어 한 팀을 이루어 번역가로 일하고 있으며, 번역하며 배운 내용을 자기 글로 풀어낼 공리를 하며 산다. 공저로 나니아 연대기 해설서 『나니아 나라를 찾아서』가 있다. 『당신의 벗, 루이스』, 『순례자의 귀향』, 『세상의 마지막 밤』, 『개인기도』, 『실낙원 서문(근간)』 등의 루이스 저서와 『C. S. 루이스』, 『루이스와 책』 등의 전기기를 포함한 열 권이 넘는 루이스 관련서를 번역했다. 올해 초에 101권째 번역서가 나왔다.

\* 본 칼럼과 표지의 사진은 <홍성사>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순전한 기독교



기독교적 속고



인간패지



기적



피고석의 하나님



네 가지 사랑



헤아려 본 슬픔



고통의 문제



예기치 못한 기쁨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루이스가 메리에게



당신의 벗 루이스



영광의 무게



세상의 마지막 밤



시편사색



개인기도



C.S. 루이스의 기쁨의 하루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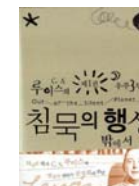
나니아 연대기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순례자의 귀향



침묵의 행성 밖에서



페렐란트라



그 가공할 힘



루이스와 책



루이스와 톨킨



루이스 VS 프로이트



C.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로



루이스와 웨퍼의 대화



C.S. LEWIS (별난 천재 마지못해 나선 예언자, 루이스)

# 한국에 소개된 C.S.루이스 읽기